“이젠 디지털 불교노인복지로 대전환”

불교실버복지 산실 ‘서울노인복지센터’ 개관 20돌



2001년 개관 당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전경. 2009년 개설한 난타교실서 북을 치는 어르신들. 2021년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대표 노인복지 거점인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가 4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4월 1일 서울시가 설립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더 이상한 복지관’ 이라는 미션을 통해 색다른, 그 이상의, 독특한, 차별적이라는 다양하고 열린 관점으로 권익, 평생교육, 건강, 상담, 취업 등 더 나은 노년의 일상을 위해 노인복지를 실천해왔다.

무료급식소에 복지서비스 더하다

2001년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연 것은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의 영향이 컸다. 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의 모습에 서울시는 무료급식소를 겸한 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위탁 운영은 관내 최대 종교시설인 조계사가 맡았다.

무료급식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은 주효했다. 설립 당시 설계한 하루 이용객 1200명을 훌쩍 넘은 사람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먼 곳에서도 어르신들이 센터로 찾아왔을 정도였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바탕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했다. 2003년에는 어르신 취업 허브로 서울시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개소하는가 하면 2007년에는 제1회 탑골대동제를 열고 어르신 문화행사를 주도했다. 2009년 실버영화관 개관과 인문학아카데미, 상담센터 개소 등은 그 연장선상이었다.

여기에 평생교육 일환으로 취미 및 교양강좌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08년 시작한 서울 노인영화제는 어르신들의 창의적 발상에 청년감독들을 함께 묶어 사회활동까지 이끄는 훌륭한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국제영화제로도 발돋움했으며 랜선영화제로도 최근에는 전환됐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21년 4월까지 6만 6000여 회원을 기록하고 하루 이용객이 3000여 명이 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자치 · 능동 복지서비스 전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20년간 어르신 복지에서 일궈낸 성과는 어르신들의 자치복지, 능동복지라는 부분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본관, 별관,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에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탑골미술관, 무료급식소인 만발식당, 은빛행복가게, 꿈나눔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TOP독립영화관, 진료실, 물리치료실, 철학교실, 당구교실, 탁구교실, 무용교실, 동아리실, 컴퓨터교실 등이 있다. 3층에는 생활상담실, 디자인실, 인생교실, TOP방송국, TOP작은공연장, 게이트볼장, 탑골문화예술학교가 들어서 있다.

별관은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해 노년설계교실, 커피전문교육실 가비방, 청각장애인휴게실, 직업능력교실 등 역량계발을 위한 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취미활동공간인 분관에는 탑골작은도서관, 상상교실, 요리교실, 체력단련실, 영화제작소 등이 위치해 있다.

2013년 5월에 개관한 탑골미술관은 예술을 품은 복지관이라는 주제에 맞춰 센터 한켠에 미술관을 열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과 함께 어르신들이 직접 문화해설사로 나서는 역할을 부여했다.

복지관 내의 탁구 · 장기 등 모임, 헬스장 운영, 바리스타 과정 등등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초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머물렀던 예전 복지개념에서 지금은 은퇴한 실버세대의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다. 특히 역할을 부여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어르신들의 역량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20년간 이 부분에서 크게 성장한 것이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성과”라고 말했다.

디지털 노인복지로 전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콘텐츠의 대중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시기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4월 1일 열린 개관기념행사는 유튜브 채널 ‘탑골TV’ 를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의 일상에 필요한 또 다른 경험과 교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한 ‘스마트복지’ 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년의 또 다른 역할을 찾고, 기존의 서비스 전달 방식을 넘어선 더욱 확장된 노인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서는 스마트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하반기에는 상담, 건강, 교육, 커뮤니티 등 센터에서의 일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구축도 제안됐다. 이날 선보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스마트복지’ 는 단순히 어르신 일상에 온라인 접근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설명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스마트복지 가능성에 대한 대담도 진행한다.

4월 2일부터는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전시인 ‘서울노인’ 도 시작했다. ‘서울노인’ 전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지난 20년 다양한 노년의 이야기를 ‘지금’ 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20년간의 노인복지를 점, 선, 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센터와 함께 걸어 온 어르신, 봉사자, 후원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지금’ 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탑골미술관 공간을 채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지난 20년 발자취를 기억하며 앞으로 20년을 살아가기 위한 과제를 탐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환경변화에 다른 방식의 대안을 계속 시도해보며,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욱 단단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걸어온 길

2001 “2001, 그 봄날의 기억.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시작”
2002 “나눔과 공유의 첫마음, 제1회 나눔의 등축제 ‘달아달아 마음 달아’”
2003 어르신취업 허브, 서울시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소
2003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노년, 탑골문화학교
2003 노인의 행복해 질 권리를 세상에 말하다. ‘2만 어르신 걷기대회’
2004 노인취업의 또 다른 역할 변화, 노인취업훈련센터 개소
2005 노년의 역동적 미래에 대한 고민, 활기찬미래연구소 개소
2006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2007 일상의 경험과 배움의 공유, 제1회 탑골대동제 ‘열혈노인’
2008 노인 · 청년감독의 노년의 삶에 대한 시선 교차, 서울노인영화제의 시작
2009 시네마천국 in 센터, 실버영화관 개관
2009 철학의 향기, 역사의 눈, 문학의 힘을 알다. 인문학 아카데미
2009 마음의 걸림돌을 희망의 디딤돌로,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개소
2010 실버갤러리 ‘고운님’ 개소
2011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년. 개관 10주년 기념 걷기대회
2011 10주년 기념 세미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센터의 역할’
2013 예술을 품은 복지관, 탑골미술관 개관 ‘봄, 익숙한 것을 되돌아 봄(개관전)’
2014 제1회 서울노인복지센터 바둑 · 장기대회
2015 지역 사회로, 상상의 분화.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개관
2015 책과 커피, 그리고 어르신 바리스타. 꿈나눔카페 개소
2015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
2015 영화와 같은 일상을 꿈꾼다. 영화제작소 개소
2016 맛으로 지역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분관 공유부엌 시작
2017 노년과 만나다. 참여미술프로젝트 첫번째 이야기 ‘숨, 결’
2018 바리스타의 꿈, 가비방 개소
2018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2019 탑골미술관 기획전 ‘다시 꾸는 꿈’
2019 제천으로 향하는 센터만의 인생열차, Silver_Train
2020 온라인, 복지서비스의 또 다른 실험과 대안 찾기
2020 랜선을 타고 전파를 타고 흐르는 열세번째, 서울노인영화제
2021 스마트복지로 펼쳐 낼 어르신의 오늘

